

## 그가 남긴 몇 가지 키워드에 관하여

# 주민등록과 초현실의 세계

글\_김용직 서울대 명예 교수

이제 오규원(吳圭原, 1941~2007)의 육신은 우리와 유명을 달리한다. 그러나 서정시인으로서 그가 남긴 이름과 작품은 평소 그대로 채색도 선명한 풍경화로 우리 곁에 남아 있다. 우리와 동시대를 산 많은 시인들이 그런 것처럼, 그 또한 전위적이며 실험적인 시각과 함께 그의 시를 시작했다. 그 보기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이 <삼월>이다. 이 작품의 첫머리는 “삼월의 신은 남쪽 물결을 타고 온다”로 시작한다. 삼월, 곧 봄이 남쪽에서 온다는 것은 시 이전의 일상적 언어의 차원이다. 그것을 초등학교 상급반의 작문 투로 고치면 “신이 남쪽 물결을 타고 온다”가 될 것이다. 이 다음을 오규원은 다음과 같이 엮었다.

-<삼월> 중에서

오규원 이전에 봄과 동사무소의 주민등록 서류를 한 문맥 속에 엮어낸 시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일찍부터 좋은 시에는 이질적인 두 개 이상의 요소가 한 조직 속에 폭력적으로 결합되어 왔다. 현대에 접어들면서 우리 주변의 시는 이 때에 생기는 언어의 역동성에 크게 주목했다. 현대시에서 바다가 범의 놀이터가 되고 해골바가지가 한 송이 꽃과 병치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런 제작 원리의 시에 대해 우리는 실험적이라고 하며 그 전위성을 평가한다. 위의 예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는 바와 같이 그의 초기시에서부터 오규원은 이런 실험을 시도했다.

그의 시를 특징짓는 또 하나의 단면은 그 말이 해사적인 데 있다. 그의 후기 작품 가운데 하나인 <그렇게 몇 포기>는 “길이란 우리들 습관의 다른 이름”으로 시작한다. 이 선언성 발언 다음에 이 작품은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 <그렇게 몇 포기>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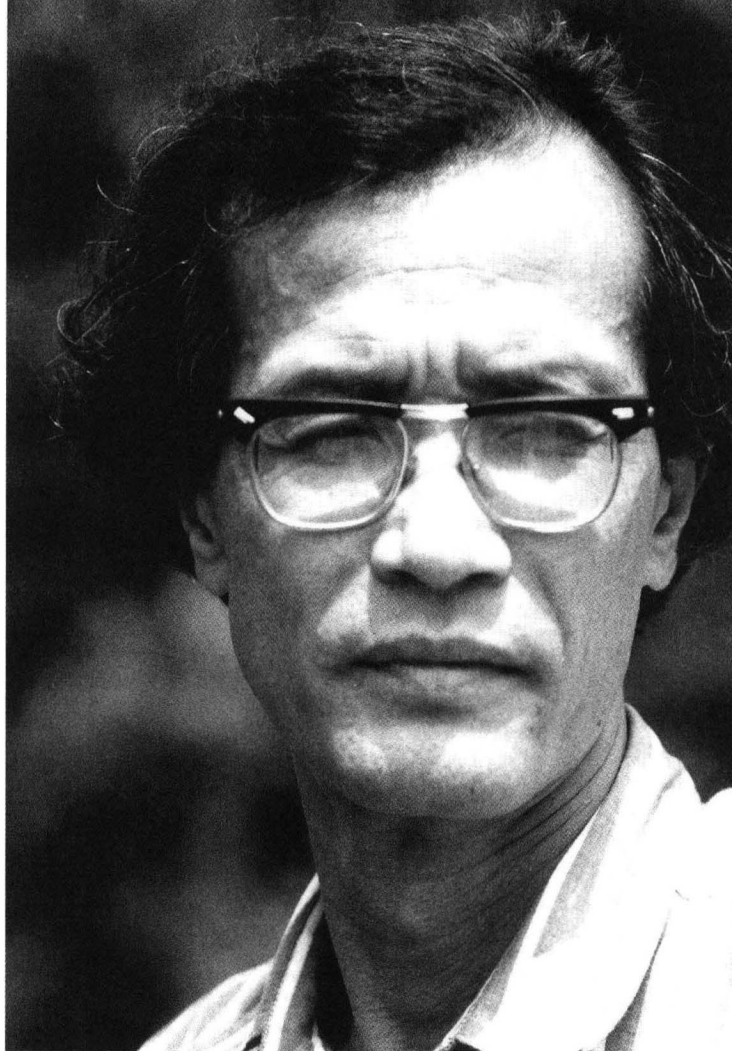
상식의 차원에서라면 길은 수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통행로다. 거기에 풀이 나서 자라는 일은 우리의 통념에 따를 때 예외에 속한다. 이 예외의 현상이 포장된 도로가 아닌 경우는 이따금 일어난다. 예외이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이것을 통사적으로 제시해도 시가 되지 않는다. 이 통사의 세계를 오규원은 “미친년처럼”이라고 하여 뒤엎어버렸다. 이 통사 뒤엎기가 해사에 속한다. 그리고 이것으로 나기 어려운 자리에 난 풀이 아주 생생하고 독

## 오규원

1941년 경남 삼랑진에서 출생하였고, 부산사범학교를 거쳐 동아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65년 《현대문학》에 〈겨울 나그네〉가 초회 추천되고, 1968년 〈몇 개의 현상〉이 추천 완료되어 등단하였다. 시집으로 《분명한 시간》 《순례》 《이 땅에 씩어지는 杼(杼)》 《새와 나무와 새똥 그리고 물랭이》 《오규원 시 전집》 1·2 등이 있다. 서울예술대학 문예창작과 교수를 역임했으며 현대문학상, 연암문학상, 이산문학상, 대한민국예술상 등을 수상하였다. 2007년 2월 2일 66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특한 풍경, 또는 사건으로 뒤바뀌었다. 이런 해사적 언어 사용을 통해 제시해낸 독특한 심상이 오규원의 몫이었다.

그의 시에 나타나는 세 번째 특징은 초현실성이다. 여기서 말하는 초현실성이란 정신분석학의 개념이 낳은 것이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인간의 정신을 크게 2대별한다. 그 하나가 잠재 의식의 세계며 다른 하나가 의식되는 세계다. 오규원의 시가 초현실적이라는 말은 그의 시가 무의식의 테두리에 드는 단면을 드러내고 있음을 가리킨다.



사진제공: 문학과지성사

### —〈해태 들꽃〉 중에서

얼핏 보아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오규원의 이 시에는 의식의 착란 상태가 검출된다. 명백히 꿀벌은 곤충의 한 종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꿀벌이 인간의 기호 식품 가운데 하나인 껌을 소리 내어 씹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다. 또한 풀은 어디서나 자연의 한 종류이며 식물의 하위 개념일 뿐이다. 식물은 침을 갖지 않으며 영혼이 있을 리도 없다. 이 엄연한 사실들을 돌보지 않은 채 오규원은 위와 같은 시를 썼다. 이것은 아무리 범박하게 셈 쳐도 의식의 착란 상태를 말로 옮겨 놓은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제기해야 할 한 가지 의문이 있다. 단순하게 초현실파류의 기법이라면 그것은 오규원의 발굴품이 아니다. 그에 앞서 우리 시사에는 1930년대의 이상(李箱)이 있었고 삼사문학(三四文學) 동인들이 또한 그랬다. 그렇다면 우리와 동시대의 오규원이 새삼스럽게 초현실파의 흥대를 낸 것은 무엇 때문이었는가.

이렇게 제기되는 의문을 위해 우리가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 그의 시에 나타나는 내면 성향이다. “침을 영혼에 넘기는 소리”. 이때에 침을 가진 것은 작품의 문맥으로 보아 풀들이다. 그 풀이 그늘을 뚫은 다음 그 침을 영혼에 넘긴다. 여기서 영혼이 누구의 것이며 어떤 성질의 것인가를 밝힐 근거가 이 작품의 문맥에서는 포착되지 않는다. 아마도 오규원이 살아난다고 해도 그것을 적실하게 가리켜내지는 못할 것이다.

무엇 때문에 오규원은 이런 작품을 썼을까. 이상과 〈삼사문학〉 동인들은 단순하게 신기를 탐해서 초현실파의 시를 썼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영혼”이란 어휘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오규원은 그의 작품에 일종의 신비로운 세계, 영성(靈性)의 차원을 수용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 실험이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두었는가를 가늠하는 데는 그의 노력이 좀 더 계속되는 것이 좋았다. 이것이 그의 서거에 대해 우리가 품지 않을 수 없는 아쉬움의 가장 큰 부분이다. ■